

유통업계, 자극 줄이고 유해성분 없앤 '클린뷰티' 주목

에티카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 로하스 인증, 순면 100% 안감사용

몽디스 유아세제 '코코글루사이드' 찬물에도 분해 세제 잔류물 최소화

한세드림 유아동복 '컬리수' 유칼립투스 추출물 활용 이너웨어



몽디스



에티카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

/에티카

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는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텐셀 소재를 활용했다. 텐셀은 수분 함유량과 흡수성이 뛰어나며, 매끄러운 섬유구조로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부드러운 소재다. 함께 선보인 '마이크로모달 솔리드 세트' 또한 너도밤나무 펄프를 통해 만든 모달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최근 피부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유해 요소까지 고려하는 '클린뷰티', '필환경' 트렌드가 떠오르며 저자극,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더욱이 형광증백제, 계면활성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뷰티, 생활용품 속 화학 성분의 유해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면서 유통업계 또한 무해성 인증을 거친 제품 및 천연 원료 활용, 친환경 가공법 등을 내세운 저자극 용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세먼지 위협이 겨울에도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됐다. 마스크는 호흡기 및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인 만큼 원료와 가공 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제품이다.

패션 미세먼지 마스크 브랜드 '에티

카'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을 선보였다. 특히 이 제품은 로하스(LOHAS) 인증을 받은 순면 100% 안감을 사용해 피부에 닿는 부위의 자극을 대폭 줄였다.

또한 초미세먼지를 94% 이상 차단할 뿐 아니라 100% 순면 원단의 특성상 합성 섬유 대비 섬유 단면이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 촉감이 부드럽고 피부 자극을 줄여준다. 더욱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섬유제품 품질 인증 시험인 '오코텍스(OEKO-TEX)' 1등급 인증을 통해 피부자극·알레르기·발암 물질 등 200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 대해 무해성을 입증 받았다.

오코텍스는 섬유 원료부터 제품의 중

간 단계, 그리고 최종 완제품 등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유해 성분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무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인증으로, 1등급은 통상 유아용 제품에 부여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카 코튼 베이직은 미드나잇 블랙, 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천연 원료를 활용해 자극을 줄이고, 잔류 화학성분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인 제품들도 있다.

세탁, 세정 제품의 경우 남아있는 화학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줘, 유아 아토피나 좁쌀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연유래성분으로 만드는 아기화장품 브랜드 몽디스 유아세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합

성 계면활성제 대신 코코넛에서 유래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코코글루사이드'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코코글루사이드는 뛰어난 세척력과 헹굼력뿐 아니라 일반 세제와 달리 찬물에도 분해되는 성분으로 세제 잔류물을 최소화해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용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이 운영하는 브랜드 컬리수는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를 위해 부드러운 천연 소재의 이너웨어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와 '마이크로모달 솔리드 세트'를 선보였다.

컬리수의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 및 마이크로 모달 솔리드 세트는 부드럽고 가벼운 천연 소재를 활용해 어린

그밖에도 생리대 브랜드 '해피문데이'는 가공 과정에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해 환경 유해 요소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걱정을 줄였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목화로 제작한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해피문데이는 농약, 제초제, GMO, 목화, 향료, 염소표백,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납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100% 유기농 순면을 적용한 탐시트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특히 농장 관리부터 유기농 순면 부직포 제작, 완제품 보관 및 유통까지 생리대 탐시트 생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완료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QR코드로 입장, 상품 들고 나오면 '자동결제'

GS25, 계산대 없는 미래형 편의점 오픈

BC카드·스마트로와 맞손

딤러닝 스마트카메라 등 테스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점포 구현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입장하고 상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오픈했다.

GS25가 BC카드, 스마트로와 손잡고 BC카드 본사에 미래형 편의점인 GS25 을지스마트점(이하 미래형GS25)을 14일에 오픈했다.

GS25는 지난 2018년 9월 업계 최초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스캐너가 적용된 무인형 스마트GS25를 강서구 마곡동에 선보이며 디지털 유통 기술 발전을 선도해왔다. GS25는 이번에 선보인 미래형GS25가 계산대까지 없이 운영대 한층 진일보된 2세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혁신을 통한 변화) 점포로 구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형GS25에서는 ▲QR코드를 통한 개인식별 ▲고객 행동 딤러닝 스마트 카메라 ▲재고 파악을 위한 무게 감지 센서 ▲영상 인식 스피커를 통한 고객 인사 ▲AI가 활용된 결제 등의 미래형 디지털 유통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형GS25는 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BC페이북(BC카드의 모바일 결제 앱)의 기술이 사용돼 넓은 확장성도 확보했다. 고객은 BC페이북의 QR코드를 스핀드게이트(미래형GS25의 출입문)에 접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고객이 점포에 들어가면 34대의 딤러닝 스마트



미래형 GS25에서 이용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GS리테일

카메라가 고객 행동을 인식한다. 매대별로 장착된 총 300여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큼 고르는지를 감지해 딤러닝 스마트 카메라와 함께 고객의 소비 행동을 학습하고 규명한다. 물건을 고르고 스피드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AI기술이 적용된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해 고객에게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구매 과정과 관련한 첨단 기술 외에도 친절 서비스를 위한 영상 인식 스피커 운영 기술도 선보인다. 영상 인식 스피커는 카메라를 통해 고객이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 행동을 할 때 미리 정해 놓은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안내되는 장비다. 미래형GS25에서는 이를 활용한 고객 맞이 인사 등이 안내된다. 향후에는 고객이 매대 앞에서 특정 PB상품을 고를 때, 현명한 선택임을 안내하거나 증정 상품 매대에 접근 시 행사 상품을 안내하는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술들도 점차 선보일 예정이다.

GS25는 이를 통해 미래형 디지털 유통 기술을 더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래형GS25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GS25는 집중 시설물 내 무인 점포의 확산 전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위성 점포 운영, 야간 미영업 점포 운영 등 특수 점포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각 산업 영역에서 AI와 딤러닝 학습 기술 등이 활용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미래형GS25 운영을 통해 단순히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맹점 경영주에게는 운영 편의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선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실속·가심비 충족 설 선물 '풍성'

선물세트·대표제품 할인 기획전

풀무원은 오는 23일까지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공식 온라인 쇼핑몰 '풀무원샵'에서 설 선물세트 및 대표 제품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풀무원샵은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실속과 가심비를 충족시켜 줄 선물세트와 명절 상차림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최대 51% 할인, 합리적 가격에 선보였다.

먼저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제품만을 엄선해 '명절 선물 BEST'를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했다. 대표 품목으로 여성건강기능식품 '풀무원로하스 로젠

빈'과 간편한 스틱형 홍삼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 선물세트(10mlX30포)'를 마련했다. 특히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은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25% 특별 할인한 선물세트로 준비했다.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은 300여가지 유해물질 검사를 완료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만 사용했고, 총명탕 원료로 알려진 원지, 석창포, 백복령을 함께 담아 설 선물로 제격이다.

가심비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실속 도시락김세트'와 '국산콩 생나또' 등은 각각 15%와 25% 할인 판매한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8개 코너서 각기다른 전문요리 맛보세요"

CJ푸드빌, 계절밥상 특화매장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계절밥상이 특화 매장을 확산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절밥상은 용산 아이파크몰점과 서 울역사점에 '라이브스튜디오8'을 도입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한식 셀렉 다이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라이브스튜디오8'은 각기 다른 8가지 코너에서 코너 별 전문성과 즉석 조리 서비스를 강화한 콘셉트다. 통으로 구워 깊은 풍미의 육류를 제공하는 '서울통구이', 해산물 전문 '진미수산', 즉석 국수를 선보이는 '바로면방', 전과 튀김 안주 코너 '일품주막'이 있다. 다양한 찬과 밥이 제공되는 '소담찬방', 계절밥상 인기 메뉴를 모은 '제철부두



막', 트렌디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이색 별미당'과 디저트 전문 '오색 다과점'도 포함된다.

'라이브스튜디오8' 콘셉트는 2018년 12월 계절밥상 여의도IFC점에 우선 도입했다. 당시 재오픈 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5% 증가했으며, 점심에는 보통 1시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IFC몰 내 인기 맛집으로 부상했다. 새로운 콘셉트는 1년동안 운영하며 반응이 좋은 코너와 메뉴를 집중 업그레이드 해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박민용 기자